

# 外人 19조 ‘탈한국’… 중동 쇼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 증시 이틀째 ‘패닉 셀링’

4일 코스피가 12.06% 하락했다. 2001년 9·11 테러(12.02%)를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날 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8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이 0.94%, 나스닥이 1.02%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패닉 셀’로 이어졌다.

주가 전망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증시 조정의 주원인이었던 중동 전쟁의 영향이 유가로 제한된 만큼 주가가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확산 여부를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리스크 관리’를 외친다.

### ◆글로벌 시장도 K증시도 ‘셀 반도체’

최근 증시 하락은 외국인도 주도했다. 이날 투자자는 이날 231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최근 10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9조3000억원어치 자금을 뺐다. 대신 개인 자금이 10조6000억원어치 시장으로 들어왔다.

### 삼전·하이닉스 차익실현 박자 뉴욕보다 큰 하락, 심리 급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58% ↓ 外人 ‘셀 코리아’ 반도체 직격탄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는 삼성전자다. 약 17조 원 어치 자금을 털었다. 2위는 SK하이닉스(4조4000억원), 3위는 삼성전자우(9300억원) 4위는 KB금융(3000억원), 5위는 S-Oil(2800억원)이었다.

중동발 전문이 확대되면서 수출과 주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반도체주로 확산한 것이다.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등의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것도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이유다. KB금융은 정부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영향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배경과 관련해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80.6%, SK하이닉스가 63.0% 각각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유인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한



재조정 움직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업황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완화 기대가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외국인은 유지해야 하는 한국 비중이 초과됐고, 비중 초과분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뉴욕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58% 급락했다. 다른 지수 대비 낙폭이 컸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180.16 달러로 1.27% 하락했고, AMD는 190.80 달러로 3.94% 큰 폭으로 떨어져 거래를 마쳤다. 메모리칩 기업 마이크론은 무려 8.02% 하락, 샌디스크는 8.91% 하락했다. 중동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미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재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기업 이익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가 다시 유입돼 코스피가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은 금융시장에 일시 충격을 줬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그 여진이 이번 주 남은 기간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반도체 포함 주도주들의 견조한 이익 펀더멘털과 정부의 증시 지원 정책, 조정 시 매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지수 추세 하락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성격의 비중 축소 전략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 혹은 낙폭 과대 주도주 매수 전략의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허약한韓경제, ‘오일쇼크’까지 덩쳐

세계경제가 중동 쇼크를 받는다면 이제 막 바다를 벗어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에 의존해 오른 증시는 금리 상승국면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실업률도 두 달 연속 4%로 나타나는 등 실물경기와 증시의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불황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전망 때보다 악화한다.

주가 상승은 한국경제와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 치명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유가가 1년간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 달러 줄고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p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당분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들 중 일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유조선 피격 발언에 공포 확산 유가 급등 땀 물가·성장률 압박 환율 급등 땀 수입물가 자극 전문가 “투매 대신 리스크 관리”

고환율 공포도 고개를 들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깊어지고 4일 한때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 오전장(오후 3시 30분)을 마감했다.

한국은 식량과 석유, 그리고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비싸진다. 빵값도, 집값도, 공공요금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지 않는 이들은 저절로 가난해진다. 내수는 침체에 빠지고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

###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되나?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마다 나뉜다. 리쿠드넷의 제프리 코너 미국 주식시장 구조 총괄은 “장기 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간과할 수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BC캐피털마켓은 과거 지정학적 충돌 이후 증시가 반등했다는 통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하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 산하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현재로서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에너지 시장이 안정된다면 긍정적인 과급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롭바드오디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새미 차르는 로이터에 “분쟁 장기화로 오일 쇼크가 발생한다면 원자재, 채권 금리, 통화, 석유에 민감한 주식 섹터, 인플레이션 전망, 통화정책 경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의 경우엔 경제 성장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주 투자 분석 업체 카퍼리포트의 분석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에는 다우평균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장기화했다가 1년 뒤에야 반등했다. 1973년 중동 오일쇼크 때에도 저점 3·6개월 후에는 상승했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 2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충격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때나 올해 1월 베네수엘라 공습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투자자들이 ‘무시’해도 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스먼은 이같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덤 헤츠 제너스헨더슨 글로벌자산 책임자는 “석유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기본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며 지정학적 충돌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metr

# 공매도 하루 5180억 급증… 이란 사태에 ‘하락 베팅’ 몰렸다

## 공매도 2조4570억, 지난달 평균 2배 대차 145조 돌파… 선행지표도 급등 “호르무즈 봉쇄 땀 변동성 확대”

이란 사태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이 하루 사이 5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 투자는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하락을 예

상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4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조9390억원 대비 518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3000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거래량도 지난달 27일 2616만4401주

에서 하루 사이 3427만6617주로 81만2216주 늘었다.

공매도의 ‘선행 지표’격인 대차거래액도 급증세다. 대차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기 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날 기준 대차거래액은 145조3872억원에 이른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

율이 높은 코스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LG디스플레이, 한화생명,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증시 과열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불확실성에 앞으로 코스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종료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의 붕괴 상황, 중동내 참전 세력 및 전선 지대 확장, IRGC(이슬람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봉쇄 등은 4일 차에 접어든 전쟁이 진정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